



16면

노을대교, 지역소멸 막을 비책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음 8월 8일) 제286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속도

추석 소비자피해 구제 도, 30일까지 '하라인' 운영

전북도-완주군-전기안전공사, 협약 체결

2025년까지 466억원 투입 · 111명 일자리 창출 효과
신재생에너지와 전주기 데이터 분석 설계 등 통합관리

전북도가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 건립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이하 평가센터)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연구용역 16,974㎡(5,000평)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태양광-ESS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성 평가 시스템 체계를 국내 최초로 마련하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 극대화, 전력수요 불확실성을 해결,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도 있어 에너지분야 유망산업으로 전망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발생한 ESS 화재는 총 32건에 달하고, 약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돼 국내 신재생 연계 ESS에 대한 안전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북이 국내 유일의 전기안전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관련기업 유치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이 평가센터에는 수소연료전지 100kW 초과 설비 시스템 검사 체계도 갖추게 돼 있어 100kW이하의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도 들어서고,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 조성사업도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른바 연료전지 원스톱(One-Stop)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입되는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은 111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술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전주기 데이터 분석으로 국내환경에 적합한 설계, 시공, 운영을 통합관리하는 기술체



전북도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일 도청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된다. 또, 경제적으로는 신재생설비에 대한 전기적 발화요인 최소화로 관련 업계 활성화 효과와 사회적으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양성과 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들도 ESS 설치의

무화가 적용돼 앞으로 안전성 평가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가센터가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ESS 화재조사위와 ESS 안전 관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6대 안전기준(공통 모드전압, 내부저항, 절연, 모듈퓨즈, 충전율, 배터리실 환경) 개발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연계된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실증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수요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유치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되고 아울러 관련 기업의 도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 '청사진'

전주시, 전북대와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창업 허브 클러스터 조성 목표 인프라 구축 등 발표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최첨단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풍부한 의료 일자리를 제공할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시는 1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권대규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전주가 그려나갈 바이오 헬스

케어 도시의 비전과 전략들을 발표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도시의 비전은 '2030 헬스케어 스타트업-벤처 허브 전주'로 제시됐다. 권 단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창업 허브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산·학·연·병 연계를 통한 최적의 바이오 헬스케어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헬스케어 소재·기기, 의료정보 빅데이터 서비스, 바이오 식약

등의 분야별 하위목표로 수립하고, 전국 최대의 헬스케어 창업 허브 도약을 위한 6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개 추진전략은 ▲헬스케어 선진 인프라 구축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 ▲헬스케어 테크 투자 촉진 ▲글로벌 성장 촉진 기반 마련 ▲기업·대학·병원·연구소 네트워크 활성화 ▲헬스케어 체감형 도시 보급 사업 등이다. 용역 결과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1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사진=전주시청 제공>

크 조성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기대효과로는 헬스케어 벤처 창업 및 기업유치 300개사, 일자리 창출 1만개에 이

를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이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최첨단 의료기술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뛰어넘어 고품격, 만성질환자 등 건강 고위험군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바이오 헬스케어를 통해 찾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와 지역대학, 민간기업, 연구기관 병행까지 연계한 최적인 첨단 바이오 헬스 혁신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그간 축적해온 대학과 연구기관의 성과를 집적하고 관련 주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 헬스케어 도시로 나아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높을 **고**고창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류무형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모두석권!

'고창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고창군 GOCHANG COUNTY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